



한인소망교회 비전

마태복음 11:28-30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Hope Church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 본당 친교실	11:00 am
수요대학/기도회 / 본당	8:00 pm
새벽예배 (화-토) /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 아가페홀	12:30 pm

교회를 섬기는 이들
Hope
Church
Staff

담임목사
방송/청년
소망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유치부

감성직 목사
오정훈 목사
이신웅 전도사
문강한 전도사
(청빙중)

시무장로
휴무장로
은퇴장로

백형수 윤순기
오귀록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이덕홍 이창진 정 민 이종학 윤순화

찬양인도
지휘자/서무

황규식
박은실
노윤실 사모 (1부, 새벽) 김은화 이화니 (2부)

반주자
통역자
방송

김예람 이화니
조준한 김예람

열방을 섬기는 이들
Missionaries

태 국 배종원
중 국 이주애
케 나 이영규
칠 레 황신재
모로코 김영목

요 르 단 설총호/전경원
도미니카 이광호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Agape Hall: (314)786-5018
www.hopestl.org

구주강림주일

12.18.2022

주의 길을
준비하라! (3)

1부 9 AM 2부 11:00 AM

LIVE



Fourth Sunday
in Advent

주일예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118번 구주 강림 (4)
참회의 기도	요엘 Joel 2:12-13
찬송	찬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같이
기도	백형수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 봉헌찬송	찬393장 오 신실하신 주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John 3:22-30, NT p 146
말씀	주의 길을 준비하라! (3) / 김성직 목사
Sermon	Prepare for the Way of the Lord! (3)
*결단의 찬양	오직 주만이 / 다같이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 신앙고백의 종류

1) 조금 전에 말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앞으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1647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서는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를 신앙의 표준이 되는 신앙고백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라는 말을 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지금은 영국의 일부)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3)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이는 1563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두 분의 신학자(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가 작성한 듯합니다. 지금의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 신앙고백문을 쓰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화란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있습니다.

* 왜 ‘나는 믿습니다’일까?

교회가 ‘함께’ 하는 고백이라면 왜 “우리는 믿습니다”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왜 개인의 고백으로 했을까요?

이 고백문이 세례 받을 때 하는 공개적인 고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에서는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받는 경우에도, 한 사람씩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사도신경이 개인주의적인, 교회의 중요

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백문이라서는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가 함께 하는 고백이지만, 각자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문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의 뜻

‘사도’ 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직접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가르쳤고, 또 그 내용을 신약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수요대학에서 나누었던 “이단이 알고 싶다 (탁지일)”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곳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과 신앙고백을 꼭 잡읍시다>

히브리서 4:14-16

1. 먼저 히브리서 4:14을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 4:14)"

'믿는 도리'는 '고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도리'라는 말은 원래 '같은 말을 하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같은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고백문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같은 말로, 같이 고백해야만 우리와 다른 신앙, 즉 잘못된 신앙을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구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2. 우리가 꼭, 굳게 잡아야 할 신앙고백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14절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1)

큰 대제사장 (2) 승천하신 분, 즉 하늘에 올라가신 분 (3)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3. 이런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늘에 올라 가셨다는 뜻은 무엇인가? 대제사장은 원래 뭐하는 분들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또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더해져서 확대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 신앙고백의 중요성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 본 성경은 왜 이 도리, 즉 신앙고백을 꼭 잡으라고 할까요?

1) 먼저, '함께 고백'함으로써 그릇된 신앙을 구별하게 해 줍니다. 교회는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동참할 수 없는 교회를 걸러내 줍니다. 물론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만 외우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조심해야 합니다.

2) 성경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앙고백은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배우거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고백들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과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은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꼭 잡아야 할 신앙 고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다.

성시교독

교독문 117번 Advent Sunday (3)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섯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3) (요3:22-30)

<본문 속으로>

1.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나요? (23절)

2.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먼저 누구와 변론했나요? (25절)

3. 변론 후에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에게 화살을 겨누나요? (26절)

4.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30절)

[토요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쉽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주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서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

- 정 민 장로님: 요양원에서 다리 재활 중입니다.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배상진 장로님: 교통사고로 등에 골절을 입으셔서 보호대 착용 중입니다.
 김기봉 장로님: 현재 키모(chemotherapy) 치료 중입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입니다.
 황신재 선교사님: 현재 많이 호전되셔서 퇴원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소연 자매님 딸 엘라: 어릴적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앓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PRAYER REQUESTS

[월요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1.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화요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수요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

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목요일]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진 주님의 몸 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금요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변론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함께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행어 “우리”하고 “너희”가 확 갈라지면서, 그렇게 우리 편과 니네 편을 나누고,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는 세대, 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서 통곡하고 있어도, 너희는 전혀 곁에서 울어주는 것조차 하지 않는 세대를 우리 역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2.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한 분만을 제대로 가리키며 살고 있는지, 혹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빛 나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붙잡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

Dec 18	대표기도	교회청소	애찬담당	설교번역	헌화
	백형수 장로	교역자모임 (12월)	키르키즈스탄 구역	이화니	

Dec 25	대표기도	교회청소	애찬담당	설교번역	헌화
	오귀록 장로	교역자모임 (12월)	케냐/교역자	이화니	

향기로운 예물 12/11/2022

주일	\$981	선교	\$20	주일학교/유스	\$4
십일조	\$3,769	구역선교	\$100		
감사	\$520				
건축	\$50				
				헌금총액	\$5,444.00

헌금외 수입금			
아가페 카페 수입금	\$70		
		합계	\$70
		입금총액	\$5,514.00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ttp://hopestl.org/online-donation>

12월 18일 (주)
제직회

12월 25일 (주)
성탄연합예배
송년예배
유아 세례
공동의회



12월 31일 (토)
송구영신예배
(11PM)
성찬식

1.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2. Driveway 심방

코로나19'의 상황에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먼저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3. 각 부서 참여

본당 입구에 부착된 각 부서 Sign-Up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어느 자리에서든 함께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4. 찬양팀/찬양대

찬양팀/찬양대를 모집합니다. 각종 악기나 찬양으로 예배팀에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황규식집사님(찬양팀), 박은실권사님(찬양대)께 해 주세요.

5. 2023년 생명의 삶 구독 신청

2023년 2월 부터 일년 생명의 삶 구독 가격은 \$84.00 입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박은실 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6. 제직회

오늘 식사교제 후 1PM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7. 성탄연합예배

다음 주일은 특별히 성탄연합예배로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하는 연합예배이기에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배중에 유아 세례식도 거행합니다. 예정되었던 성찬식은 상황상 송구영신예배 때 합니다. 2부에 다같이 연합으로 모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 1부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8. 연말공동의회

다음 주일(12/25)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구역

(임병갑 구역장)과
이주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라옥님 집사님 가정 위해서